전라·강원도 나한상 한자리에 모아

국립전주박물관
'깨들은 수행자, 나한~'展

기획전시실 11월 29일 ~ 2월 26일
실상사 서진암 나한상 등 90점 전시
다양한 나한상 조형미 감상기회 기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11월 29일부터 2023년 2월 26일까지 특별전 '깨달은 수행자, 나한 : 전라도와 강원도 나한의 만남' 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남원 실상사 서진암 나한상 등 수행을 통해 완전한 자유에 이른 다양한 모습의 석조 나한상 90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는 특별히 고려와 조선시대의 강원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의 석조 나한상을 모아 전시한다. 나한은 부처와 보살에 비해 도상의 법식에서 자유로워 얼굴과 자세 표현이 다채로운 것이 특징이다. 단단하고 변함없는 석재에 새겨진 나한의 얼굴들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특별한 감상을 불러일으킨다.

강원도 영월 창령사 터 오백나한(국립춘천박물관 소장)은 2001년에 영월의 절터에서 발견된 것으로, 다양한 표정 위로 해탈한 나한의 편안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중생의 '희로애락' 이 담겨 있는 친근한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 특별전 등 여러 전시를 통해 대중에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부산박물관 등 국내는 물론 2021년 12월에 호주 파워하우스 뮤지엄에서도 전시됐다.


남원 실상사 서진암 나한상 조선 1516년(금산사 성보박물관 위탁 보관).


나주 불회사 나한상 '생각에 잠긴 나한'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영월 창령사터 오백나한 친근한 얼굴들(국립춘천박물관 소장).

전라도 나한상들도 이에 못지않은 조형미와 독특한 개성을 보여준다. 서봉사 터 나한상(국립부여박물관 소장)의 미소년을 닮은 말끔한 미소, 불회사 나한상(국립광주박물관 소장)의 생각에 담긴 얼굴들, 실상사 서진암 나한상의 굳건함 등 지역별로 사용했던 석재와 조각 솜씨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나한상의 다양한 조형미를 감상할 수 있다.

나한은 아라한의 줄임말로, 살적(殺賊), 응공(應供), 응진(應眞)이라고도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을 다해 수행하여 아무 괴로움도 없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불제자를 말한다. 살적은 수행의 적인 번뇌를 항복받아 죽였다는 뜻이고, 응공은 모든 번뇌를 끊고 도덕을 갖추었으므로 인간과 천상의 공양을 받을 만하다는 뜻이며, 응진은 '진리에 상응하는 이' 라는 뜻이다. 이들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열반에 드는 것을 미루고 중생 곁에 머물며 불법(佛法)을 지키고 모든 중생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중생을 제도한다.

불제자 가운데 16명의 뛰어난 제자를 '16나한' 이라고 하며 이들은 무량의 공덕과 신통력을 지니고 있어 열반에 들지 않고, 세속에 거주하면서 불법을 수호하는 존자(尊者)다. 부처님이 열반한 뒤 제자 가섭이 부처님의 설법을 정리하기 위해 소집한 1차 결집 때 모였던 제자 500명을 500나한이라고도 한다. 나한은 인간의 소원을 성취시켜 준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이 됐다. 중국의 당송시대에 유행했던 나한상은 삼국 후기부터 소개되어 고려시대에 크게 유행했다.

나한상은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지물을 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극도로 생략된 모습이 있기도 하고 움직임이 크고 해학적인 모습도 있다. 나한상의 지물로는 염주, 발, 동물, 경전, 금강저, 과일 등이 있다. 다양한 모습 속에는 심오한 정신적인 면이 내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불교조각의 다양한 미의식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전시 마지막에는 나한의 깨달음을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 영상을 상영한다. 번뇌를 넘어 깨달음을 위해 정진했던 수행자를 떠올리며 명상이나 휴식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 기간 중 12월 6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2시 30분까지 나한을 주제로 한 큐레이터와의 대화가 진행된다.

홍진근 국립전주박물관장은 "고독한 수행으로 마침내 자유로워졌지만 다시 중생을 향해 손을 내밀었던 나한과 마주하며 마음의 위안과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불화 · 민화 작가
한유경 개인전

갤러리 이즈 12월 14~20일


한유경 作, 제석 천룡탱화 한지에 분채 석채 금분 186×138cm.

불화 · 민화 작가 한유경이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갤러리 이즈 3층에서 개인전을 연다.

한유경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민화와 불화의 아름다움을 작가 고유의 방식으로 표현한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가장 주목되는 작품은 '몽중연(夢中蓮)' 으로, 연꽃이 만발한 연못을 그린 10곡 병풍이다. 작가는 어릴 적 처음 박물관에서 접했던 민화 연꽃 병풍을 10여 년이 지난 후 다시 박물관에서 마주했다. 그러나 자신이 기억하는 연꽃 병풍이 아니었고, 이에 작가는 다시 자신만의 기억을 상상하며 연꽃 병풍을 완성했다.

연꽃이 가진 깨끗함이라는 특수성은 불교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또 동양 문화권에서는 맑은 물, 달빛, 훈훈한 봄바람으로 표현, 군자의 풍모를 논한다. 또한 고려 문신 이규보의 시문집 〈동국이상국집〉에서는 청정한 연을 보며 참선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표현했다. 작가는 그런 연꽃의 모습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려냈다.

한유경 작가는 "민화와 불교미술 회화인 불화는 우리나라의 채색화로 점차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소재와 내용이 매우 다양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적으로도 아름답고 의미 있는 그림으로 다가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오랜 세월 그려왔던 불화와 민화를 현재 작가의 시점으로 다시 만드는 것은 작가로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림의 바탕이 되는 한지와 비단 등의 특징과 먹과 채색의 조화로, 한국의 불화와 민화의 아름다운 색채감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유경 작가는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민화과정을 수료했으며, 동국대 불교미술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2004년부터 전국비구니회관 문화센터 민화강좌 강사로 있으며, 2013년부터 우리옛그림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미술사연구소 연구원, 불일미술관 큐레이터, 충청대 사회교육원 문화강좌 강사 등을 역임했다.

박재완 기자

동휘 스님 '약풀되어 구제하리' 展
서울 갤러리 인사아트 12월 14~20일


동휘 스님 作, 빛의옴

모든 이의 눈에 부처님 눈동자 그리고파

옴 · 북두구진 빛 담은 아홉 부처님과
북두구진 눈동자 주제 등 50여점 전시

"어떤 시련을 만나도 행복할 수 있는 빛을 보는 눈, 부처님의 눈동자를 모두에게 그려주고 싶습니다"

30여 년 동안 옴과 만다라 그림을 그려온 동휘 스님(해피만다라 문화원장)이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인사아트에서 그림전 '약풀되어 구제하리' 를 개최한다. 동휘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옴과 북두구진의 빛을 담아 탄생한 '9요 부처님' 과 '북두구진을 담은 눈동자' 를 주제로 한 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의 작품은 그동안 해왔던 작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옴과 북두구진의 빛으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한 '약풀 되어 구제하리' 라는 주제의 작품들이다. 동휘 스님은 고된 수행 끝에 얻은 "진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일에 있다"는 깨달음을 전해왔다. 그동안 이러한 빛에 관한 진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동휘 스님이 제작한 해피만다라와 해피옴이다.

이번 작품들 역시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그림 '옴 만다라' 는 또 다른 '해피 만다라' 라고 할 수 있으며, 스님은 그것을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약풀이라고 말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 차원 상승된 작업으로 옴과 북두칠성(북두구긴)의 빛을 담아 완성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오랫동안 치성의 대상이었던 칠성의 빛을 받아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의 일곱 부처님에 운을 관장하는 대운 부처님과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지닌 공의 부처님을 합쳐 아홉 부처님이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눈에 깨달음의 빛을 담아주고 싶다는 염원' 을 담아 눈동자에 별을 담은 작품들도 선보인다.

'깨달음의 그림' 이라고 자신의 그림을 소개하는 동휘 스님이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를 여는 또 하나의 목적은 불교문화의 확장과 업그레이드이다. 스님은 전통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미래와 현재의 삶 속에 숨어있는 빛의 깨달음을 그려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우주의 원리를 담은 21세기에 어울리는 진리의 그림, 깨달음의 그림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쉼 없이 개척해왔다.

밝은 톤의 색감과 캐릭터 느낌의 선을 활용한 동휘 스님의 작품들은 기존의 불교문화와 확실한 차별성을 모색하면서도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과도 잘 어울린다는 평가다. 전시기간 동안 전시장에서는 수시로 동휘 스님의 법문과 만다라 그리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재완 기자

